

#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4 권 53 호



주일 미사: 오전 8시 (한국어, 영어), 오전 9시 30분(영어), 오전 11시 30분(스페인어)  
 한국어 평일미사: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토요일 미사: 오후 6시(스페인어). 성경공부: 주일미사 (오전 8시) 후 친교실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오후 5:00 - 5:30). 금 (오전 9:00 - 9:30)  
 임원회의: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8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 금요일(오후 2 - 8시). 화, 목요일(오후 2 - 6시).

| 미 사 성 가   | 입당 () | 봉헌 ()  | 성체 () | 파견 () |  |
|---|-------|--|-------|-------|--|
| <p><b>삼종기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li> <li>●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br/>(성모송)</li> <li>○ “주님의 종이오니</li> <li>●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br/>(성모송)</li> <li>○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li> <li>●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br/>(성모송)</li> <li>○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li> <li>●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li> </ul> <p>十 기도합시다.<br/>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br/>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br/>                 저희에게 내려주소서.<br/>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br/>                 ◎ 아멘.</p> |       | <p><b>성소를 위한 기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좋으신 목자 예수님,<br/>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br/>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li> <li>● 비오니, 오늘도<br/>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br/>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li> <li>○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br/>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br/>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li> <li>●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br/>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br/>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li> <li>○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br/>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li> <li>●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br/>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li> <li>◎ 아멘.</li> </ul> |       |       |  |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 날짜    | 미사해설  | 독서    | 복사           |
|-------|-------|-------|--------------|
| 12/28 | 이 클라라 | 김 헬레나 | 성인복사         |
| 1/4   | 이 마틸다 | 이 바오로 | 허 벤자민, 박 다니엘 |
| 1/11  | 유 요한  | 김 헬레나 | 허 벤자민, 박 다니엘 |
| 1/18  | 이 클라라 | 이 바오로 | 허 벤자민, 박 다니엘 |
| 1/27  | 이 마틸다 | 김 헬레나 | 성인복사         |

\*'제 1 독서' (한글)/ '제 2 독서' (영어).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 주일미사  | 봉헌금       | 2 차 봉헌   | 교무금       |
|-------|-----------|----------|-----------|
| 12/21 | \$ 292.00 | \$108.00 | \$ 250.00 |

\* 2 차 봉헌: 매월 첫째, 셋째 주일미사.

한국어 평일미사: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에 한국어 평일 미사가 있습니다.

새해 미사 일정 안내

1 월 1 일(목):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오전 9 시 30 분)

공 동 체 소 식

한인회 송년파티: 12/28 (주일) 저녁 5 시 30 분

장소: Hodel's Country Dining (Liberty Hall)

5917 Knudsen Drive, Bakersfield, CA 93308. (661) 399-3341

성체조배: 1/8 (목) 오후 6 시 30 분

성체조배는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목요일 저녁미사 직후)에 있습니다. 다음 성체조배는 1 월 8 일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에 있습니다.

평협임원회의: 1/13 (화) 저녁 8 시

한인공동체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1 월달 회의는 1 월 13 일(화) 저녁 8 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견진성사: 1/18 (주일) 샌프랜시스 성당

오는 1 월 18 일 (주일)에, Kern, Inyo 카운티의 신자들을 위한 견진성사가 주교님의 집전으로 샌프랜시스 성당에서 열립니다. 한인공동체에서는 홍 마르코 형제, 아네스 자매님께서 견진성사를 받으실 예정입니다. 많은 기도와 축복 부탁드립니다.

소구역 공동체 모임: 1/18 (주일) 주일 아침미사 후

신년 첫 소공동체 구역모임은, 오는 1 월 18 일 주일 미사 후 에 있습니다.

Happy New Year!

말씀의 이삭

봄에만 꽃이 피는게 아니다

원동연 제네시오|리얼라이즈퍼처스(주) 대표

저와 영화를 같이한 류승룡 씨는 나이 마흔이 넘어서 배우로서 자리매김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난타의 공연배우로서 활동하였고, 난타를 그만두고 연극과 영화 일을 하면서도 영화 관계자들에게 묻는 대중들에게도 주목받는 배우로 위치하지 못했습니다. 어느새 그도 결혼하였고, 두 아들의 아버지이자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살아야 하는 어깨 무거운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별반 나아진 것이 없었고, 연기자로서의 미래도 암울하게 느껴졌습니다.

실의에 빠진 그는 대학(연극과) 은사님을 찾아가서 "이젠 연기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저만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면서도 연기자의 꿈을 꾸는 것이 무책임 하게 느껴져서, 이제 그만 다른 일을 해볼까 합니다."라고 속내를 털어 놓았습니다.

그의 말을 곰곰이 들던 은사님은 류승룡 씨가 연기를 그만 두겠다는 말에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야, 이놈아 모든 꽃이 봄에만 피는 줄 아니? 어떤 꽃은 여름에, 또 어떤 꽃은 가을에, 그리고 매화 같은 꽃은 그 추운 겨울에 꽃을 피우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류승룡 씨는 대한민국 영화계에 그 존재감이 어마어마한 배우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아마 그가 겨울에 핀 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역시 제가 올바르게 살고 있는 건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가슴속에 영접하면서 그분의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세례받고 성당을 다니고는 있지만, 무늬만 신앙인으로서 사는 건 아닌지, 그래서 더 고통스럽고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차라리 신자들을 욕보이지(?) 말고, 차라리 진심을 다해 내가 가슴으로, 그리고 행동으로도 완벽하다고 느낄 때 신앙생활을 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럴 때마다 류승룡 씨 은사님의 말씀을 새깁니다.

어떤 형제는 좀 일찍 꽃이 피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자매님들은 여름에 꽃이 피어 평화롭고 아름답게 살아가지만, 나는 아직 주님이 꽃을 피우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서 그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못하다고요. 그래도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생각하면서 살면 언젠가는 꽃을 피워 주실 거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만족스러운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걸 포기할 게 아니라, 항상 주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살아갈 때 아마 주님은 저에게 아무 의심도 없는 가장 예쁜 꽃을 피우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 꽃 언젠가 저에게도 꼭 피게 해달라고....

<서울주부에서>

가정을 위한 기도

-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 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 아멘